

# 산수유, 알알이 머금은 구례의 애환과 삶



◀김인호씨가 구례 산수유 마을 사진전에 출품한 산수유 열매 사진 (2013년).

##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10월 공연

12일 광주문예회관...아카펠라 그룹 ‘원더풀’ 무대

‘천원으로 즐기는 행복한 공연.’  
 매달 두 번째 월요일 시민들을 찾아오는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10월 행사가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초대 손님은 젊은 아카펠라 그룹 ‘원더풀(ONE THE FULL)’(사진)이다. 지난 2006년 결성 후 클래식부터 팝, 재즈, 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아카펠라로 사랑받고 있는 혼성 6인조 그룹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Over the rainbow’, ‘잠미’, ‘벚노래’ 등 팝, 가요메들리,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들려준다.  
 2009년에 미니앨범 ‘Come Back Show (컴백쇼)’로 가요계에 데뷔한 ‘원더풀’은 2013년에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식전공연, 무한도전 등에 출연했으며 부산 국제합창제 아카펠라 앙상블 부문 1위를 수상했다. www.gi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



## 김희연·이재명 작가 초청 ‘장소상실’展

‘스페이스K 광주’ 29일까지

스페이스K 광주가 김희연·이재명 작가를 초청해 오는 29일까지 ‘장소상실(Placelessness)’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현대 도시 환경에서 장소성의 상실을 다룬 작품 13점이 출품됐다.

김희연 작가는 사라져가는 옛 건물과 그 안에 공존하는 인공 구조물을 통해 현재와 과거가 혼재된 풍경을 그려낸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며 동시에 방치된 장소들을 소재로 삼았다. 문을 굳게 닫은 역, 방치된 공장 등 사람들의 시선에서 비껴나게 된 공간들을 통해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이재명 작가는 낯선 대도시의 고층 빌딩숲과 그 안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재구성해 고독과 소외감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현대화된 대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삭막한 공간을 통해 현대인을 억압하는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표현하고 있다.



김희연 작 ‘파란 지붕’

김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를 졸업하고 개인전 3회, 단체전 25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홍익대 회화과·대학원을 졸업한 이 작가는 서울 금호미술관 개인전 ‘ARENA’를 열었고 20여회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2-370-594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오늘 ‘북유럽 문화예술과 교육’ 특강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 ‘북유럽 디자인 NORDIC SPIRIT’와 연계해 ‘북유럽 문화예술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7일 오전 10시 본관 강당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 강사는 북유럽 디자인전 초청 큐레이터인 안예경씨가 맡는다. 안씨는 ‘소리 없는 질서’, ‘핀란드 디자인 산책’, ‘북유럽 디자인’ 등

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한국 문화를 북유럽에, 북유럽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강의 후에는 안 씨의 북유럽전 작품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및 신청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산수유 사진전 갖는 구례군청 김인호씨

1990년부터 지리산·섬진강 구례 풍경 기록 수매·축제 등 담은 70여점 11월 22일까지 ‘산수유 열매는 등록금 책임진 ‘대학생 나무’

“하얀 눈 속에 파묻힌 빨간 산수유 열매가 그렇게 예쁠 수 없습니다.”

구례군청 사진담당 공무원 김인호(53) 씨는 평생 구례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렌즈에 담았다. 지리산, 산수유마을 등 그가 찍은 사진들은 구례의 역사이자 기록이었다.

김씨는 초등학교 4학년때 처음 카메라를 접했다. 현재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군청 사진을 담당했던 아버지는 상위마을, 화엄사, 지리산 등 촬영을 나갈 때마다 김씨를 데리고 다녔다. 김씨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사진촬영기법과 화면 구도 등을 배웠다.

김씨가 중학생이 되던해 아버지는 필름카메라를 선물했다. 이후 사진은 김씨에게 삶이자 숙명이 됐다. 김씨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놀러갈때 등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카메라 담당이었다”며 “항상 카메라를 들고다니면서 사람들과 일상을 찍는 버릇이 생겼다”고 회상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난 1990년도부터 군청 사진 담당으로 근무하며 본격적으로 사진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주말마다 카메라를 가지고 지리산 등을 다녔다. 경비도 만만치 않았다. 한번 나가면 약 10만원이 들었고 필름을 인화하는데 비용도 1만원으로 당시에는 적지않은 액수였다. 누가 알아주거나 금전적 이익이 생기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구례를 기록해나갔다. 지금 같으면 가족에게 구박 받을 일이지만 다행히 아내 김영애(48)씨는 그런 김씨를 이해해줬다.

“여기서 나고 자라기도 했지만 내가 아니면 구례 모습은 누가 기록하느냐 중요성을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네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찍은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필름카메라를 쓸 당시에는 현상이 되기 전까지는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사진이 나왔을때 색깔이나 농도가 의도했던대로 나왔을 때는 희



구례군 산동면 상위마을(1990년).

열을 느꼈다고 한다.

김씨가 이렇게 90년대 초반부터 찍은 사진들은 이번에 빛을 봤다. 구례군이 김씨의 사진들로 ‘구례 산수유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제3호 지정 1주년을 맞아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산수유마을 사진전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 사진전은 ‘과거-현대-미래를 이어주는 산수유마을’을 주제로 동편 소리축제 기간에는 구례문화회관(7~18일)에서, 산수유열매축제 기간에는 산동면 지리산나들이장터(23일~11월22일)에서 열린다.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현천마을 전경 및 산수유 수매를 찍은 사진 20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열린 제1회 산수유꽃축제 및 산수유마을 풍경 사진 20점, 마지막으로 산수유를 수확하는 산동주민 모습과 산수유 열매 관련 사진 30여점 등이 전시된다.

특히 산수유 열매 사진은 김씨의 애정이 깊다. 열매를 팔아 자녀들의 등록금을 책임졌던 시절이 있었기에 산수유는 구례에서 ‘대학생 나무’로 불릴만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또 가을철에 익는 산수유 열매 특성상 눈을 함께 찍기 위해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매년 봄 산수유꽃은 많이 찍는데 열매의 아름다움은 몰라보더라구요. 하얀 눈과 빨간 열매가 같이 있으면 엄청 예뻐요. 시가상 눈이 자주 내리지 않아 사진을 찍는데 몇년씩 기다린 적도 있어요.”

김씨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매년 노고단, 피아골, 섬진강 등 주제를 정해 사진전을 열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 **몸신**이다**

이홍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 / 정은아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